



한국의 비틀즈 꿈꾸는 모던 록밴드 '보드카레인'

글 김미영 kimmy@hani.co.kr

하늘에서 '독한 비'가 내리다면? 황당하면서도 기발한 상상이다. 우울해 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모던 록밴드 '보드카레인'이 꿈꾸는 음악은 바로 이런 것이다. 색과 향은 없지만 깊숙이 독한 맛을 품고 있는 보드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맛은 다르지만 고유의 독한 맛은 잃지 않는 '독한 비' 같은 그런 독특한 음악을 만들고 싶단다.

'보드카레인' 이름을 직접 지은 안승준(보컬·32)씨는 "말 그대로, 음악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보드카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고 전했다. "하늘에서 도수 40도의 독한 술이 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웃음)

감미롭고 익숙한 멜로디

기발한 이름을 가진 밴드답게 이들의 음악은 기존 밴드들과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인디 밴드라고 하면, 거칠고 시끄러운 음악을 한다는 편견을 갖고 한다. 이에 반해 '보드카레인'의 음악들은 훨씬 부드러워 마치 한편의 시를 귀로 읽는 느낌이다. 2005년 첫 데뷔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밴드가 다 있네?"라고 신기해했다. 록 같지 않은 감성 코드가 입혀진 탓에, 이들의 음악은 인디와 주류의 경계선에 있다는 평을 듣는다.

"어릴 때부터 취향이 달랐어요. 동요를 좋아할 나이에 유재하, 조규찬 노래 같은 느낌을 좋아했어요. 인디밴드의 음악이 어렵고 거친 것이 아니라 들으면 기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주윤하·베이스)

"인디 밴드 음악은 거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려운 건 아니구나, 공감도 잘되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안승준)

그래서일까. 데뷔 5년차 인디 밴드치고,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홍대 클럽, 대중음악 프로그램, 록페스티벌 등 무대 또한 폭넓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서경석의 <뮤직쇼>, 일락의 <아름다운 밤 우리들의 라디오>에 게스트로도 출연 중이다. 그런데도 욕심을 낸다. "드라마 음악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하하."(이해완·기타)

이들은 무대에 섰을 때와 관객과 호흡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기왕이면 큰 무대, 관객이 많은 무대에서 연주하고 공연을 할 때 말이죠.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면 정말 큰 힘을 받습니다."(서상준·드럼)

그래서 '보드카레인'은 설 수 있는 무대는 가능



왼쪽부터 서상준, 안승준, 이해완, 주윤하 씨

한 다 서려고 한다. 방송이든, 콘서트든, 페스티벌이든, 거리든 상관없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성과도 되도록 빨리 내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대견하죠. 음악 프로그램에 나갔고, 록페스티벌 메인무대에도 서봤으니까요. 데뷔 당시 목표는 거의 이룬 셈입니다.”(주윤하)

지금껏 2천 번 가까이 무대에 섰다. 지금은 폐지된 KBS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전례 없이 3번의 앵콜 요청을 받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들이 텔레비전에만 나오면 순식간에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가 되는 건 예상일이다. 이처럼 ‘보드카레인’이라는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음악은 전혀 생소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음악스타일이 평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안식처 같은 음악을 하는 밴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중과 가장 가까워서 호호하는 록, 록임에도 방송에서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음악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팀이 한 팀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안승준)

어릴 때부터 뮤지션 꿈꿔

‘보드카레인’은 보컬인 안승준 씨와 그와 20년 지기인 주윤하, 고교 시절부터 홍대 클럽에서 경험을 쌓은 이해완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페이먼트 멤버 출신의 서상준으로 이뤄졌다. 살아온 방식과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들과 나누며 살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음악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2005년 1월 의기투합했다.

네 멤버의 어릴 적 꿈은 뮤지션이었다. 아버지의 기타 치는 모습을 본 뒤 이해완 씨는 중

학교 때부터 기타의 매력에 빠졌다. “자연스럽게 기타를 치면서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깨닫게 됐어요.”(이해완) 집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다. 그는 보드카레인에 합류하기 전 홍대 인기가수인 이지형과 함께 록 밴드 워퍼에서 활동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주윤하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의 인정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서상준 씨는 고2 때부터 음악을 하겠다는 결심



을 했다. 뒤늦게 미술에서 음악으로 전향한 케이스이지만, 서씨만이 유일한 (실용)음악 전공자다.

보컬 안승준 씨는 뒤늦게 가수로 전향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졸업과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한때 장기하 등과 함께 스킵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컴필레이션 앨범인 <밴드밴드짼짼>을 내기도 했다. 이 앨범을 낸 곳이 바로 붕가붕가레코드의 전신이다.

“앨범에 ‘그녀의 소파’라는 곡을 수록하면서 음악에 욕심이 생겼어요. 자작곡 실력을 떠나 더 큰 물에 나가 아티스트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음악으로 승부를 내고 싶어서, 윤하랑 보드카레인을 결성했죠.”

2007년 3월 정규음반 1집 <더 원더 이얼스(The Wonder Years)>가 나왔고, 2008년 겨울 정규 2집 <플레이버(Flavor)>를 발매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싱글, 지난해 10월 낸 어쿠스틱 미니앨범 <이분십표>가 있다. 데뷔 5년차임에도 족적이 상당하다. 막내이자 가장 늦게 팀에 합류한 서상준 씨는 “형들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했다.

‘보드카레인’의 발전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 벌써부터 5년 앞을 계획 중이다. “오래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하하.”(주윤하) 기왕이면 거창한 꿈을 세워보려고 한단다. “사실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위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차근 차근 알려지고 사랑받는 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주윤하)

롤 모델은 ‘비틀즈’

이들의 꿈은 한국의 ‘비틀즈’가 되는 것이다. ‘비틀즈 스타일’로 불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비틀즈의 건강한 밴드 이미지, 멤버 개개인의 특성, 평화를 노래한 이들의 삶까지도... “발라드에서부터 마니아 취향의 음악까지 비틀즈는 대중과 가장 긴밀하게 호흡했던 록밴드니까요.”(이해완)

실력도 이미 인정받았다. 데뷔 해인 2005년 SKY 인디그라운드 연말결선 준우승, 인디 영웅을 거쳐 2006년 문화콘텐츠진흥원 인디레이블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규 2집 <플레이버(Flavor)>는 앨범 발매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천장을 품절시켰다.

이렇듯 대중성과 음악성, 인지도를 꾸준히 쌓아 왔지만, 여느 밴드들이 그렇듯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못된다. 음반시장이 위축된데다 이들이 설 방송의 문이 아직 활짝 열리지 못한 탓이다. 그럼에도 ‘투잡’은 사절이다. “음악 한 우물만 파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의 매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회사 내 스튜디오로 출근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연습 또 연습이다. 탄탄한 연주 실력은 이제 안승준의 감미로운 보컬과 더불어 어느덧 ‘보드카레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가난하지만 서로 모일 공간이 있다는 것,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다수보다는 소수와 함께 하고 싶다

비주류 음악을 하기 때문일까. 다수보다는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한 소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힘없는 약자가 고통 받는 곳에도 어김없이 서왔다. 지난해에는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시작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의 500일 무대, '초·중 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콘서트 무대 등에 섰다.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보호받지 못한 소수, 소중한 비주류에게 음악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싶어

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무대에 계속 서서 힘을 줄 생각입니다. 파업 현장 역시 다수의 논리 앞에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안승준)

내년쯤 정규 3집 앨범 출시

이들의 정규 3집은 내년 봄쯤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2.5집 미니앨범 <이분침표> 이후 재충전 중이다. "우리 곡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게 원칙입니다. 다행히 음악적인 색깔이나 성향은 저희 네 명이 잘 맞는 편입니다. 음악 때문에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이해완) '보드카레인'의 곡은 주윤하와 이해완이 주로 쓰고, 작사는 안승준이 맡는다.

"사실 한국 록의 흐름은 들국화 이후 끊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크라이넛이 대중성과 음악성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거친 가죽바지를 입고, 체인을 걸고 다녀야 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바꿔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서상준)

"우리나라는 밴드의 인식이 굶주림의 상징, 철없는 오빠들의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만 해도 오아시스, 라디오헤드 등 밴드 음악이 주류인데 말이죠. 그런 이미지를 바꿔주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주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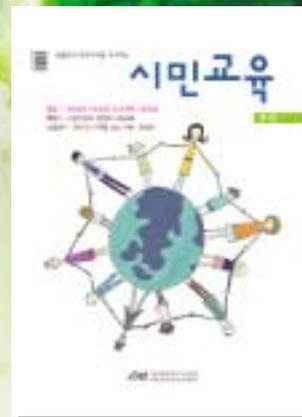
"앞으로 나올 우리의 앨범들과 우리가 할 공연들을 기대해 주세요. 강박증이 있어서 비슷비슷한 공연은 우리가 못해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 꼭 찾아주세요."(이해완)

글 김미영 | <한겨레> 기자, 사진 뮤직커벨 제공

생활속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교육

제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값 4,500원

◆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호 발간 인사	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특집 I	06	시민교육 10대 화두_시민교육 2009년을 말한다_윤석정
인터뷰 · 강정숙	28	시에서 평화, 빈곤에 대한 교육 안하면 될 합니까?_주은경
시민교육의 현장	32	변화전략으로서 시민교육_곽형모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는 희망적이다_황정옥
		'바른 아카데미'의 대학생 아카데미_이현호
특집 II	44	시민지성의 성장과 시민교육
		01 시민교육의 신패러다임을 구현하자_정민승
		02 시민교육, 삶의 문제에 대답하라_주은경
		03 시민교육, 공백 속에서 지도 그리기_김기현
		04 시민교육에서 민관협력_하승창
인물탐구 · 정성현	66	DMZ에 나무를 심는 사람_송기역
초점	72	민주시민교육과 교사연수
		숨통이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교실_최지윤
		프로젝트 시티즌 좌담회_이선태
프로그램	85	비폭력 직접행동교육 워크숍 매뉴얼_정혁
		진화론을 제대로 알게 하는 『이기적 유전자』_홍중기
섹션창	92	1963년 워싱턴대행진 그리고 We shall overcome_유종순
		민주시민교육 자료 안내_조철민